

위령의 날(둘째미사)

(후렴)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

Fine

1. 주님은 너그럽고 의로우신 분
2. "나 참으로 비참하구나." 되네 면서 도
3.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 이

우리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네
나는 믿었네
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

주님은 작은 이들을 지키시는 분
문턱 놀라 나는 말하였네
아, 주님, 저는 당신의 종

가엾은 나를 구해주셨네
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
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

D.C.